

# ‘감사 갈등’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 수업 자료 준비 안돼...1·2학년 방과후학교 운영 못해

### 고려고측 “정상화 위해 주홍글씨 해결 교육청서 도와야”

광주시교육청과 고려고가 ‘상위권 학생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26일 고려고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기간 3~4주 동안의 수업에 대한 자료 등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가 3년치 모든 시험지를 꺼내서 다시 채점을 하면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심해졌고, 강

한 징계수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도 있다고 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학교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아이들의 신뢰를 받게 된다면 (학교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먼저 실행돼야 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를 도와줘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문제유출과 의도적인 성적조작은 없었다고 한 만큼 주홍글씨를 달고 수업에 들어

가는 전 교사들에 대한 명예를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결과 그런 것(문제유출과 의도적인 성적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파면과 해임 등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업 준비도 하지 못했고, 교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도 했다”며 “일부 교사들은 심리적 위축 등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5일 고려고에서 3학년 기말고사 수학시험 5문제가 특정 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된 문제에서 출제됐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 조사 결과 ‘기하와

벡터’ 교과목 시험 문항 5개 가운데 4개는 수학동아리 학생 31명에게 사전에 나눠준 문항과 일치했고, 나머지 1개 문제는 기호 하나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고려고가 명문대 진학실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특정 학생들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 교사 4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퇴직교사 1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현수박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도 지난 23일 고려고 학교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1

## 춘천 한 공업사서 암모니아가스 누출

강원 춘천시 한 공업사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중독의심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26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3분쯤 후평동 한 공업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 경찰, 환경청, 시청, 가스공사 등이 현장에 출동해 가스 종류와 발생 원인을 조사했다.

환경청 조사 결과 암모니아 가스로 확인됐으며 허용농도 25ppm에 못 미친 4~8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 있던 A(66)가 중독의심으로 병원진료를 요청해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암모니아 가스가 흡에 흡착돼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출 농도는 허용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지정폐기물업체를 불러서 오염물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다세대주택서 방화로 6명 부상...40대 입건

26일 0시 2분께 충남 당진시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6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3층에 사는 A씨(41)가 화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4층에 살던 B씨도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주민 8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불로 3층 건물 내부 25㎡ 및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거실에 부탄가스통을 놓고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흔적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를 방화 치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 골프장 연못서 수질 점검 60대 숨진 채 발견

충북 충주시 한 골프장 해저드(연못)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3분쯤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A골프장 연못에서 B씨(66)가 숨겨졌던 것을 이 골프장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숨진 B씨는 A골프장이 재개장을 앞두고 지난 24일 골프장 내 연못 관리 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골프장 내 연못의 수질상태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골프장 연못만 전분으로 관리해오던 수질전문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 ‘다여성 머리채’ 30대 폭행 혐의 입건

경찰이 흉대 앞 일번 여성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인 방모씨(33)를 폭행 혐의로 26일 입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방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현재 모욕 혐의는 조사 중”이라며 “방씨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23일 서울 마포구 흥대 일대에서 일번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대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이 당시 찍힌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인터넷을 타고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24일 방씨와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25일에는 피해여성에게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 외제차로 고의사고 24차례 20대 남성 구속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합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억4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대응훈련도 실천처럼 26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열린 3/4분기 재난대비 ‘폭발물·화재 대응 훈련’에서 군 폭발물 처리반이 숨겨진 폭발물을 찾아내고 있다.

## 곡성군 단풍나무 가로수 수 백그루 고사 위기...왜?

### 침냉쿨 제거하려 제초제 뿌렸다가 피해 ‘자초’

곡성군이 침냉쿨을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뿌렸다가 가로수 수 백 그루가 고사하는 피해를 자초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침냉쿨제거 작업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9일 까지 죽곡면 오죽로(구성~신풍간) 4km구간의 국도 주변 침냉쿨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살포 차량을 이용해 제초제를 뿌렸다.

군은 “침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어 번식력이 강한 침냉쿨 확산을 억제하고 침냉쿨 제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가로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최종 생사 여부는 내년 봄에 잎을 띄우는지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군은 가로수 고사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버린 잎을 제거하고 퇴비와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제초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침냉쿨을 제거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다보니 가로수까지 피해를 입혔다”며 “가로수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은행정지 승강기 2만대

### 전수점검...4대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6일까지 은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점검을 나서 2만여 대를 전수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불합격으로 은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은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마쳤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 여대 중 검사에 불합격 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만837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은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이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들어 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매년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더불어 위법사항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작년부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